"젊은 피 수혈로 새로운 시작 준비한다"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과학출판의 嫡長子 돌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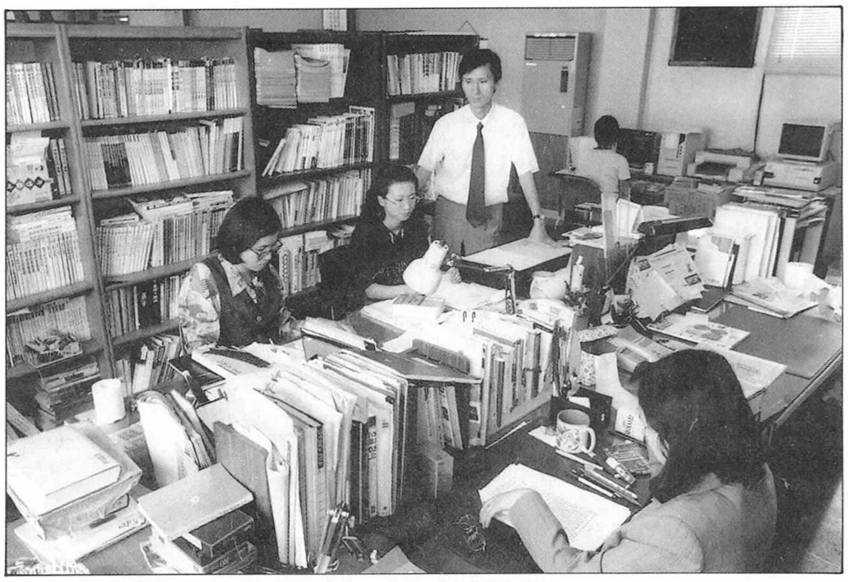
올해로 창립 15년을 맞는 돌베개출판사(대표 한철희)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출판의 번성기와 그 역사를 같이한다. 유신체제가 종말로 치닫던 1979년 여름 창립되어 80년대 초반에서 말기에 이르는 7, 8년여간 한국사회과학출판의 절정기에 그 역시 전성기를 누리며 사회과학의 주요 저작물들을 쏟아냈음이다. 그리고 80년대말 90년대초, 사회과학출판의 쇠퇴기에 같은 길을 걸었던 많은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변신의 몸부림을 칠 때 한걸음 물러나 앉아 최소의 몸짓으로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망하는 조신스런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돌베개는 지금까지도 "대중과 함께 한" 사회과학출판의 嫡子임을 자처하는 데 걸릴 것이 없다.

지난해말 돌베개는 '생선 가운데 토막' 같던 지난 10여년 동안 편집장과 주간을 지내며 돌베개 출판물을 성격을 결정지어 왔던 한철희(39)씨가 대표로 자리를 옮겨앉음으로써 기존 가족분위기의 운동집단에서 본격 '기업'의 2차집단인 출판'사'로 거듭나기 위한 체제정비를 마쳤다. 아직은 '관망'중으로, 스타트를 위한 움직임은 내년에 가서나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철희 대표는 "출판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 "기업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최근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물론 돌베개 출판정신의 원류를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출판사의 근황을 밝혀보인다. 변화의 바람은 大勢의 바뀜에도 결코 조급성을 보이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운신의 폭과 방향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 세기말의 특성이 돼버리고 만 것일까. 長考 끝에 내린 결론은 "출판은 이제 출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출판물'로 운동에 복무했던 80년대

올들어 전4권짜리 「중국역대시가전집」(기세춘, 신영복 편역)과 「답사여행의 길잡이」(전10권 예정) 1, 2권 등 현재까지 그리 많지 않은 예닐곱권의 신간을 펴낸 돌베개는 올해안에 "직장인을 위한 권리사전"인 「노동법 사전」을 비롯해 선거참가자들을 위한 「통합선거법해설」 등 10여종으로 올해의 출판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옛날부터도 종수에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다"는 말처럼 지난 15년간 돌베개가 발행한 책의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총 178종. 여느 진보적 사회과학출판사들과 구별되는 돌베개만의 특성을 이 총목록을 통해 찾아본다면 의식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용 이론서라기보다 현실개혁과 노동의 현장에서 직접 참고할 수 있는 '실천용' 저술들로 더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돌베개 책들에 갈래를 나누어본다면 먼저, 「한국근대민족운동사」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실록 친일파」 등과 같은 '우리 역사·우리 사회'에 관한 책들로 돌베개의 대표적인 분야를 꼽을 수 있고, 「알기 쉬운 노동법」 「직업병과 산업재해」 등의 노동현장의 실제상황 속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는 '노동자·노동조합'에 관한 책들,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문고」 「철학의 철학사적 이해」 등의 일련의 '철학·철학사·철학자'들에 관한 역서들, 「예술이란 무엇인가」 「맑스·엥겔스 문화예술론」 등의 '문학이론·예술이론', 그리고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책을 권할까」 등의 '책읽기 지도 길잡이' 및 역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주요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 「학급경영」 등의 '참교육 실천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해방공간의 희귀자료를 총망라한 「한국현대사자료총서」 「주한미군사」 등의 양장본 영인본들이 있다. 이제는 많은 수 買氣가 뚝 끊겼지만, 이 중에는 돌베개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지속적인 스테디셀러도 수종 있다. 「전태일 평전」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2·3」 「친일파 99인 1·2·3」 「실록 친일파」 「우리역사 이야기 1·2·3」 등이 그것.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돌베개 출판사. 서있는 이가 한철희 사장.

변신 위한 모색 다양

돌베개 출판사의 직원수는 편집부 4명, 영업부 4명 등 사장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다. 이것은 출판사 초기부터 거의 고정적인 숫자다. 요즘 출판사들이 혈안인 자체 '기획'과 과학적 '마케팅'의 반짝반짝하는 분위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출판사 전래의 수동적인 업무방식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도 조만간 바뀔 것이다. 대표 겸 사장 한철희 씨는 요즘 몹시 바쁘다. 비교적 '혈기찬' 40여 단행본출판사들의 모임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으며, 원로·중견들에 의해 주도돼 왔던 출판업계의 일에 '젊은 피'를 수혈할 생각이다. 이전엔 관심조차 없었던 유통이나 업계 내부의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라는 것. 그 중심에 이전 사회과학출판의 嫡子 돌베개 사장인 그가 서있다. 물론 자신의 출판사부터 본격 '출판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정혜옥 기자

1 부활/톨스토이 **2 좁은 문(외)**/앙드레 지드 **3 아Q정전(외)**/노신
4 대위의 딸(외)/푸슈킨·톨스토이 **5 채털리 부인의 사랑**/로렌스
6 폭풍의 언덕/에밀리 브론테 **7 귀여운 여인(외)**/체홉
8 첫사랑·전날밤/투르게네프 **9 데미안(외)**/헤르만 헤세 **10 파우스트**/괴테
11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 **12 햄릿(외)**/셰익스피어
13 마지막 잎새(외)/오 헨리 **14 성(城)·변신**/카프카 **15 보바리 부인**/플로베르
16 주홍 글씨(외)/호돈 **17 테스**/토머스 하디 **18 신곡**/단테
19 여자의 일생(외)/모파상 **20 적과 흑**/스탕달 **21 검은 고양이(외)**/포우
22 제인 에어/샬로트 브론테 **23 개선문**/레마르크
24 무기여 잘 있거라(외)/헤밍웨이 **25 실낙원·복낙원**/밀턴
26 안네의 일기(외)/안네 프랑크 **27 보물섬(외)**/스티븐슨
28 그리스 로마 신화/토머스 불핀치 **29 골짜기의 백합**/발자크 **30 성채**/크로닌
31 나나/에밀 졸라 **32 일리아드**/호메로스 **33 오딧세이아**/호메로스
34 닥터 지바고/파스테르나크 **35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울리나**/헤밍웨이
36 37 죄와 벌/도스토예프스키 **38 39 대지**/펄 벅
40 세익스피어 4대 비극/셰익스피어 **41 어린 왕자·야간 비행**/생텍쥐페리

혜원은 성실히 양서를 출판하겠습니다

혜원세계문학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전화 / 336·5804 333-9991, 2
FAX / 333·9996

혜원출판사

42 이방인·페스트/카뮈 **43 분노의 포도**/존 스타인벡 **44 백경**/허먼 멜빌
45 46 카라마조프 가 형제/도스토예프스키
47 4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마거릿 미첼 **49 생의 한가운데**/루이제 린저
50 백년 동안의 고독/마르케스 **51 천국의 열쇠**/크로닌
52 가시나무 새/콜린 맥컬로우 **53 달과 6펜스**/서머셋 몸
54 55 56 레미제라블/빅토르 위고 **57 셰익스피어 희극선**/셰익스피어
58 지와 사랑/헤르만 헤세 **59 위대한 유산**/디킨스 **60 61 안나 카레니나**/톨스토이
62 63 데카메론/보카치오 **64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65 타고르 선집**/타고르
66 초당(草堂)/강용흘 **67 아에네이스(외)**/베르길리우스
68 멋진 신세계(외)/헉슬리 **69 세계의 신화 전설** **70 71 72 전쟁과 평화**/톨스토이
73 동물 농장·1984/조지 오웰 **74 인간 요건·사랑의 종말**/그레이엄 그린
75 성채/생텍쥐페리 **76 춘희·카르멘**/뒤마 피스·메리메 **77 인형의 집(외)**/입센
78 어머니/고리키 **79 천로역정**/존 버니언 **80 유리알 유희**/헤르만 헤세
81 에덴의 동쪽/존 스타인벡 ■ **장 크리스토프**/로맹 롤랑
■ **구토(외)**/사르트르 ■ **말테의 수기(외)**/릴케

★혜원 세계 문학은 계속 나옵니다.★